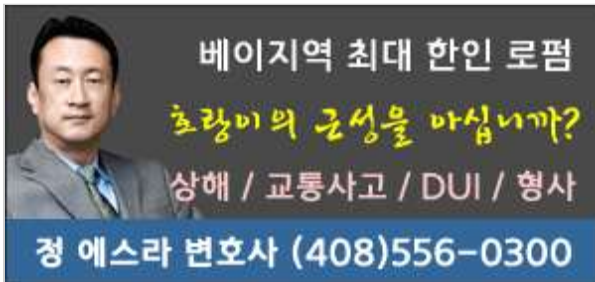


“자랑스럽다, 애들아!” 다솜한국학교 졸업식·종강식

by KDT posted MAY 25, 2020



캘리포니아 북부 서니베일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 이사장 전남진)의 2019~2020학년도 종강식과 졸업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 여파로 개교 이래 처음으로 화상(Google MEET)으로 진행됐다.



이날 졸업식은 졸업생들이 '위풍당당 행진곡'에 맞춰 입장하는 대신 졸업 모를 쓴 학생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시작됐다.

이번에 졸업하는 6명의 학생은 6년에서 10년 동안 한국학교에 다녔다. 다솜 웹사이트 사진첩에서 졸업생들의 어린 시절과 현재 모습의 사진들을 모아 전시현 보조교사가 이들의 성장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함께 감상하며 졸업을 축하했다.



최미영 교장은 축사에서 "오늘 졸업식은 그동안 보았고 상상해왔던 졸업식의 모습은 아니지만, 기억 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롯이 자리 잡은 귀한 졸업식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지난 수년간 배운 한국어와 한국 역사문화 수업이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재미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최 교장은 "한국학교를 졸업했다가 한국어 교육을 다 마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계속 공부해 영어와 한국어 및 다른 언어에도 실력을 갖추고 리더십을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남진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6-10년 동안 한국학교에 다니고 졸업하게 됨을 축하하고 장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만나서 졸업식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졸업식을 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며 "고진감래라는 말로 졸업생들을 축하해 드리고 싶다. 고진감래는 고난을 이겨내어 기쁨을 맞이한다는 뜻으로 여러분의 졸업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고 했다.



전 이사장은 "그동안 힘든 시기도 있었을 테지만 견디고 이겨내어 오늘 이런 기쁜 날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고진감래를 기억하며 자랑스러운 재미 한인으로 능력 있는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부

모님과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축하했다.

졸업생 발표 영상으로 지코의 ‘아무 노래’를 개사해 졸업생들이 피아노, 기타, 드럼 및 댄스로 졸업 공연을 했다.



장선진 전 보조교사가 졸업생들에게 졸업 어떤 의미인지를 인터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과 재학생들의 축하 인사를 담은 영상도 시청했다.



한편 앞서 종강식에서 보조교사들에게 대통령봉사상 안내와 이사장상 및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권민우 보조교사에게는 특별 장학금이 수여됐다. 모범상과 1년 개근상 수여도 화상으로 진행됐다. 2020~2021학년도 다솜한국학교 개강은 오는 9월 12일이다.



〈박현종 인턴기자〉

[Korea Daily Times Page view](#)

Today : 7584 Yesterday : 9591 Total : 7604852